

내년 예산안 처리 '진흙탕 싸움' 우려

여야 '메가 서울' 등 이슈 대치 심화 민주 패스트 트랙·국힘 필리버스터 노란봉투법·방송 3법 처리도 갈등

국회가 최근 '메가 서울' 등 대형 이슈에 휩싸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처리 과정에 진흙탕 싸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오는 9일 본회에서 표결을 앞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방송3법)을 놓고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올 예산안 처리도 뒷전으로 밀릴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다른 인접 도시로 서울 편입 대상을 넓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찬반 입장을 정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른바 '서울 확장론'을 앞세워 여론전에서 주도권을 쥐고 민주당을 코너로 몰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당 대표 직속 '수도권 편입개선 특별위원회'는 일단 구리와 하남 등 주민 여론이 우호적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확장' 논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는 6일 첫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현황 보고도 들을 예정이다.

김포시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은 당론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유의동 정책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여당의 '찬반 표명' 요구를 일축하며 당분간 여론 추이를 뒤쫓을 사안인 만큼 선불리 입장을 냈다가는 향후 탈출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메가 서울을 여당의 '총선용 카드'로 보고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신 민주당은 맞불 차원에서 김포시 속원 사업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으로 역공을 꾀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및 착수'에 더해 '9호선 연장 검토'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당의 '메가 서울' 구상을 수도권 열세

를 만회하기 위한 '국토 갈라치기',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하는 여론전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여야 대치는 쟁점மான 노란봉투법과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표결이 이뤄지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 필리버스터에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전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수적 열세로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으나, '무제한 토론'을 활용한 여론전으로 야당의 입법 강행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민주당은 정의당 의원 전원과 일부 비교섭단체,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공조 약속'을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4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국은 법안 통과 이후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세사기 피해구제저oke 저그 트나비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해야"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구제저oke 전국 동시발의 및 특별법 개정의견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김포 의원들 "김기현·조경태 김포서 불자"

더불어민주당 김포 지역 국회의원들은 5일 '경기도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울산 남구)와 여당 내 관련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에게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김주영(김포갑)·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와 조 위원장의 말이 허풍이 아니라면, 선거가 장난이 아니라면, 김포에서 화끈하게 제대로 한번 불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김 대표가 김포시의 서

을 편입 주장을 처음 제기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6일 만인 이날 입장을 냈다.

이들은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 "김포의 특례시 권한은 서울시 산하 1개의 자치구 수준으로 축소돼 도시계획 권한을 잃고, 예산도 수천억 원 줄고 시민이 부담할 세금은 올라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서 재보궐에 참패한 국민의힘이 총선용으로 던질 사안이 아니었다"며 "그런데도 김포가 명품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열려있는 자세로 시민들과 논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 대표의 갑작스러운 발표 이후 김포 시민들은 '교통이 먼저', '서울 쓰레기만 처리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교통 여건 개선 및 기피 시설 이전 불가 요구를 내놨다.

교통과 관련해서 김포 북부까지의 지하철 5·9호선 연장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필요 예산의 이번 예산안 반영 등을 요구했고, GTX-D 노선의 강남 연결 조기 확정 및 김포시민의 도강세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 등도 촉구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 기피 시설은 절대 안 된다"며 "김포가 서울로 편입된다면 흑역사 서울의 골칫거리들을 모두 김포로 옮기려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중심 똘똘 뭉쳐 총선 승리 매진"

정청래 최고위원 광주서 특강 "대통령 잘못 뽑아 온 국민 고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대통령을 잘못 뽑으니 온 국민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내년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다목적 강당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치하 민주당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무역수치 순위가 세계 5위였는데, 지금은 200위"라면서 "대의 경제 의존성이 높은 우리 수출량의 3분의 1을 중국·홍콩 등 중화권에

의존하는데도, 윤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욕하니 무역이 잘 되겠느냐. 나라 망하자는 것이냐"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큰일 날 것 같다. 내년 총선에서는 애국심의 발로(義勇)로서 민주당을 지지해야 한다. 이재명을 중심으로 똘똘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승리해야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강연은 광주 동남을 지역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병훈 광주시당위원장장과 민주당 당원 400여명이 참석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국힘 광주시당, 내년 광주시 국비확보 분주 주기환 위원장 여야 지도부 만나 협조 요청

AI 인프라 조성 사업비 긍정적 답변

주기환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이 내년 광주시 국비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5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만희 사무총장 등을 연이어 만나 광주시의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확보 협조를 요청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과 서삼석 국회 예결위원장도 만나 협조를 구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민주당 정책위의장·예결위원장은 광주시의 초·중대 인공지능(AI) 맞춤형 데이터 전처리 및 실증 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140억 원)를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긍정적 답변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151억원 증액, 어린이 아트 앤 사이언스파크 시설설계비 15억원 지원 등도 당부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 면담에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건전한 재정 운용의 필요성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면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인공지능 사업 등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광주시당과 광주시가 소통하고 의견을 개진한 만큼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서삼석 예결위원장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시 국비 지원 사업과 별도로 광주 5개 구청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할 방침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양향자, 첨단산업·소부장 예산 1조원 증액 촉구

한국의회양향자(광주 서구)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의 경제부처 질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예산 1조원 증액 편성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양 의원이 첨단산업특화단지와 소부장특화단지가 위치한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15조 2538억원, 이 가운데 내년에만 1조 6414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 9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정부가 첨단산업특화단지에 직접 지원하는 국비는 444억원에 불과하다. 필요 예산의 0.3%에 그치는 셈이다. 올해 정부



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원예산은 199억원, 신규 소부장특화단지 예산은 337억원에 그쳤다. 지자체에서 필요하는 1조 6414억원의 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 의원은 "조속한 특화단지 가동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받은 1조원 규모의 증액안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는 "특화단지 조성 및 구축 상황에 따라 차등 시점에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면서 "증액안을 제출하면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사협회 심의필 제230620-중-154988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개원21년의 첨단우리병원에서
건강과 행복을 챙기세요!

대상포진 폐렴백신 영양수액

백신 냉장고 도입

첨단우리병원 전화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